

4.3 기억영화제

예매 클릭

2025. 04. 03. 목 저녁 7:30 CGV 광주상무



영화 정보

로그라인

제주 4.3. 수많은 여자들이 죽었고 더러는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남았다. 들어보라. 바람 속에서 침묵에 묻혔던 그들의 목소리가 깨어난다.

기본정보

- 감독: 지혜원
- 프로듀서: 김옥영
- 제작사: 스토리온
- 상영포맷: DCP 2K / 2.39:1
- 상영시간: 87분 38초
- 완성연도: 2024년 1월
- 장르: 휴먼/사회/역사/여성
- 월드 프리미어: 2024년 5월 2일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 영화제 수상: 2024 EBS국제다큐영화제 - 글로벌 초이스 경쟁, 심사위원 특별언급 & 관객상

· 트레이일러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IO8mCdSA4w>



시놉시스

1948년 봄, 마을의 젊은 여자들이 한꺼번에 끌려가 며칠 후 모두 사살되었다. 그때 단 한 사람의 소녀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유일한 생존자이며 목격자인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평생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대략 대신 발작을 일으켰다.

그 해 이후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는 죽음의 섬이었다.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이 공산 빨치산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섬 주민 3만여명을 학살하고 집을 불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상당부분은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입은 피해는 오래 알려지지 못했다. 한 소녀는 면전에서 할머니가 끌어 찢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전선에 7군데나 자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녀는 젊은 임산부의 옷을 벗기고 그 부른 배를 창칼로 찢어 죽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많은 소녀들이 강간당하고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차츰 때론 입을 다물었다.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지금까지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이 시련을 견디어 내는 동안 어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 피해자를 대대수는 세상을 떠났고, 극소수만이 생존해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헌신적인 제주 4.3 연구자의 길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봉인되었던 제주 여성들의 경험을 바로 세상에 밖으로 끌어내고자 한다. 이것은 그들이 직면했던 암흑한 시간으로 가는 여정이자 침묵에 잠긴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밖으로 불러내는 초혼의 영위이다. 또한 그 오랜 고통을 참고 이겨내 온 불굴의 정신들에 대해 제작진들이 바치는 경의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주요 등장 인물

- 01  김은순 (89세, 1934년생 / 표현연 토산리 거주)
- 02  김홍열 (81세, 1942년생 / 애월읍 반대동 거주)
- 03  고정자 (92세, 1932년생 / 대정읍 보성리 거주)
- 04  홍순공 (91세, 1931년생 / 구좌읍 행원리 거주)
- 05  조정희 (46세, 1977년생 / 4.3연구자)

김은순 (89세, 1934년생 / 표현연 토산리 거주)
젊은 여성들이 끌려간 후 집단사살된 토산리 달빛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언니와 함께 토벌대에 잡혀갔다 며칠만에 혼자서 살아 돌아왔다. 1년 전부터 남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혼자 살고 있다. 오래된 우울증으로 밤을 낮이 나간 듯한 표정과 눈빛을 하고 있다.

김홍열 (81세, 1942년생 / 애월읍 반대동 거주)
4.3때 아버지는 목포수용소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됐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밭일을 하며 자식들을 혼자 키웠다. "4.3에 관해서는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던 어머니 때문에 함구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이렇게나마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자유된다"고 말한다. 가장 참혹했던 여성 학살 사건 '비학살상 임산부 살해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고정자 (92세, 1932년생 / 대정읍 보성리 거주)
아버지가 토벌대를 피해 자취를 감춘 후,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할 아버지와 언니가 학살됐다. 동년배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목 도 말', '도피자 가족'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다. 어린 한 명 없이 아이들끼리 살아 가는게 힘들고 외로웠다.

홍순공 (91세, 1931년생 / 구좌읍 행원리 거주)
무장대의 세화리 습격사건 때 고고모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고, 본인은 철장으로 7군데를 찢려 후유장애인이 됐다. 20세에 부모의 강권으로 통감내기 고아와 결혼했지만,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혼자 떠맡아 육자로 원정 물질을 다니며 6남매를 키웠다.

조정희 (46세, 1977년생 / 4.3연구자)
제주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부터 현재까지 4.3연구자로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존자들을 면담 조사하고 그 증언에 대한 구술 채록을 계속하고 있다. 여성 노인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제주 4.3과 여성> 1~4권에 공저로 참여했다.

제작진



감독 - 지혜원

지혜원 감독은 수많은 TV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수많은 상을 받았고, 국제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역량이 있는 감독이다. 2016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그리 버드와 노래들'이 IDFA를 비롯 세계 유수한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장편영화 감독으로서 인지를 다졌다. 두 번째 장편 '안녕 미누'는 2018년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되었고, 세 번째 장편 '집에서 집으로'는 2021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프로듀서 - 김옥영

김옥영 프로듀서는 방송다큐멘터리 작가로 출발하여 약 40년간 방송과 영화를 넘나들며 기획, 구성, 제작을 감해왔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겸임교수를 지냈고 2010년부터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스토리온을 설립하여 방송다큐와 다큐영화를 직접 제작해오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 루터를 맡아왔고, 여러 작가상과 작품상을 받았으며,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 <다큐의 기술>이 있다.

주요스텝

촬영감독 - 변종석 | 촬영 - 김세훈, 이정준, 송우용 | 수중촬영 - 김원국 | 현장진행 - 변종수, 김주은 | 자료조사 - 고희간 | 원안 - 작가십10
편집 - 김형남 | 음악 - 김지연 | 애니메이션 - 황선숙 | CG - 이정백 | DI - 김형주 | 타이틀 캘리그래피 - 윤주태 | 사운드 슈퍼바이저 - 김수연
대사 에디터 - 이지윤 | 사운드 디자인 - 김수연, 이지윤 | Foley Artist - 이용진 | Foley Recording - 이성의 | SFX Sound - 김우연, 이지윤

영화 리뷰

- 오정훈 감독(<벼꽃><느티나무 아래> 감독)
"최근 본 작품 중에 최고였다. 감히 백점 만점에 백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 Carolyn Hinds 캐롤린 힌즈 (영화평론가 겸 저널리스트, KCrush America Magazine)
"이 다큐멘터리는 침묵 속에 담긴 말이 큰 소리를 말하는 것만큼 중요함을 시의적절하게 일깨워준다."
- 전후석 감독(<헤로니모><조선> 감독)
"전국민이 봐야만 할 작품이다."
- 황은 감독(<갑석가족의 딜레마><수라> 감독)
"다큐의 존재 이유를 기억하게 하는 영화."
- Simon McEnteggart 사이먼 매켄테가트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영화 및 미디어아트 학과 조교수)
"뛰어난 영상미, 강렬한 감정, 유의한 정보가 담긴 작품. 극장에서 내 주위에 앉은 이들이 모두 영화에 감동해서 울었다."
- 전우성 감독(KBS대하사극 <고려거관정> 감독)
"술인데 따뜻했다. 무거운 내용인데 몰입감이 엄청났다."
- Patricia Aufderheide 패트리샤 오더하이드 (아메리칸대학교 교수 및 미디어와 소셜임팩트 센터장)
"침묵이 내는 커다란 소리를 담은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목소리들'은 여성 역사에 새로운 공간을 개척했다."
- 박해영 작가(드라마 <나의 아저씨><나의 해방일지> 작가)
"내가 몰랐던 4.3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 심해경(한신대 독일어문화학과 교수)
"영화는 70여년간 소외되었던 목소리들을 화면에 시각적으로 담아낸다. 제주 4.3사건의 성정지착은 막 시작되었다."